칼 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 본적이 없다." 성서에 나온 말이다. 그렇다. 언제나 빛이 이겼다. 누구나 빛을 원한다. 하지만 원한 만큼 주어지지는 않는다.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간절히 노력한 만큼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깜깜한 밤에 성냥불을 켜면 그 불빛만큼만 밝음을 얻을 수 있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도 역시 자신이 빛어내는 것만큼만 얻는다. 칠 흙 같은 어둠속을 자동차를 몰고 달려보면 언제나 헤드라이트 불빛만큼만 주변이 환하다. 그 이상의 빛을 요구해봐야 결코 얻을 수 없다.

더 얻으려면 뭔가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어둠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그래서 그 두려움에 지게 되면 결코 빛을 가질 수 없다.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는 낡은 사고와 습관을 개선해 가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두려움을 갖는다. 선뜻 결정을 못한다.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실천을 못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다.

따라서 불행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음식물도 지천으로 널려 있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풍요다. 하지만 병마는 훨씬 더 많다. 그 중요 원인 중 하나는 음식조절능력 부족이다.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인데도. 섭취하면 그만큼 운동 등을 통해서 소모해야한다. 물론 한계선을 넘는 운동은 독약이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춰야 무병장수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각종 질병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왜 그럴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알면서도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이처럼 습관은 고치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빛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빛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진 만큼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이 한 유명한 말이 있다.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그가 한 말은 반복된 단 세 마디였다.

주어진 시간은 6분이었는데도. 식장에 조금 늦게 도착한 중절모와 두꺼운 코트의 노신사. 졸업생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단상 앞으로 느릿느릿 걸어갔다. 연로하고 약간은 지쳐 보이는 듯한 그는 당당하고 꼿꼿하게 섰다. 약 1분 동안 청중들을 그윽하게 바라본 뒤 "Never Give Up!(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이라고 했다. 청중들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약 40여초 동안 청중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 다음 우렁찬 목소리로 다시 "Never Give Up!"이라고 외쳤다. 이때 청중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학교, 성당, 집 등을 폭격하던 때를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침묵 속에서 나이어린 학생들까지도 눈물을 흘렸다. 노 정치가는 마지막으로 다시 "Never Give Up!"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다음 모자와 코트를 집어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이것이 가장 짧으면서도 청중들을 뜨겁게 감동시킨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으로 빛을 얻기 위해서는.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기기 때문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산불 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를

지난 2025년 3월 22일 경상북도 의성군의 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역대급이었다. 크고 작은 산물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산불 화재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먼저 산불 발견 시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 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또 산불이 주택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불씨가 집안이나 집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다. 또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은 제거한다.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침착하게 신속히 대피하되 대피장소는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밭, 학교 등 공터로 대피한다.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 예방이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더욱 개개인이 산불 예방에 힘쓰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한선근

기고

건설현장 용접·절단작업 중 '불티' 하나가 대형화재를 부른다

기본이 지켜질 때, 화재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용접 및 절단작업은 구조물의 설치와 철재 가공 등 다양한 공정에 필수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는 작은 크기와 짧은 지속시간에도 불구하고,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공사장 화재 사례를 보면, 용접 또는 절단작업 중 방화포 미설치, 주변 정리 미흡, 작업 후 잔불 확인 소홀 등 기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단열재, 합판, 포장재, 폐기물 등 가연성 자재가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불티가 날 경우, 불은 순식간에 번지고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화재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1. 작업 전 주변 가연물 제거 - 작업 반경 내 인화성 자재를 사전에 제거하여 불티 착화를 차단해야 한다.

2. 불티 비산 방지 조치 - 방화포, 방염포 등 불티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

3. 감시자 배치 및 잔불 확인 - 작업 중에는 반드시 감시자를 지정하고, 작업 종료 후에도 최소 30분 이상 잔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소화기 비치 및 비상대응 체계 마련 -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화기를 근거리 작업장에 배치하고, 관계자들은 비상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보성소방서는 공사장 안전관계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전 점검 및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그리고 화재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이 예정된 건설현장에는 사전 예방순찰 및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화재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기본이 지켜질 때, 재난은 예방할 수 있다. 공사장 내 모든 관계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티 하나가 대형화재로 번지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박은원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음력 4월 17일)

48년생 흰 머리 성성해진 경험을 꺼내보자.60년생 동경하던 삶 주인공이 되어보자.72년생 식어있던 열정에 불씨가 피어난다.84년생 반박할 수 없는 충고를 들어보자.96년생 희망이라는 단어 뚜렷이 보여진다.

49년생 주고받는 인심 계산이 없어야 한다.61년생 냉랭한 반응 거절임을 알아내자.73년생 흔들리는 모습에 중심을 잡아내자.94년생 충분히 알아도 열심히 더해보자.97년생 격변의 시행착오 강함이 더해진다.

50년생 괜히 하는 허세 점수만 깎여진다.62년생 반대에 설득 당하면 땅을 쳐야한다.74년생 꾹꾹 누르고 있던 속내를 꺼내보자.86년생 우연한 기회가 날개를 달아준다.98년생 애정 표현은 씩씩하고 강해야한다.

51년생 대단했던 기세 꼬리가 내려진다.63년생 방법이나 표현 부드럽게 해야한다.75년생 소중한 만남 추억을 만들어가자.87년생 쑥스러운 상황 얼굴을 두껍게 하자.99년생 오랫동안 기다린 행복이 함께 한다.

52년생 한길 고집의 결실 만세가 불려진다.64년생 사소한 변화에 민감함을 가져보자.76년생 부자 된 기분 콧노래가 절로 난다.88년생 씩씩한 점수로 시험을 통과하자.00년생 알밉도록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자.

53년생 아쉬움이 없다. 팔짱 끼고 구경하자.65년생 기초에 충실한 모범생이 되어보자.77년생 아름다운 유혹 예쁜 꽃을 피워보자.89년생 허영심을 빼야 진짜가 보여진다.01년생 저절로 자란 솜씨 강이 바라로 간다.

54년생 충분히 잘해왔다 만족을 가져보자.66년생 달리 가는 의견 머리를 맞대보자.78년생 바쁘고 피곤했던 숙제를 마쳐보자.90년생 꿈으로 가는 첫 걸음을 걸어보자.02년생 잠시 했던 부진 제자리로 돌아가자.

55년생 용기 있는 고백 초라하게 들려진다.67년생 괜히 하는 약속 후회로 얼룩진다.79년생 걱정스럽던 눈빛 이내 편해진다.91년생 친구 없는 외로움 반성부터 해보자.03년생 승부는 종이 한장 각오를 다시 하자.

56년생 고맙고 든든한 응원을 받아보자.68년생 늦게 만난 인연 사랑으로 이어진다.80년생 울어도 좋을 만큼 기쁨이 더해진다.92년생 보고 배운 공부 경험을 더해보자.04년생 말수를 줄이고 듣는 귀를 가져보자.

57년생 세상 고민 없는 편안함을 가져보자.69년생 언제나 최고 비싼 값을 받아내자.81년생 싫다 하는 거절에 본질을 알아내자.93년생 도와주지 못했던 빚을 갚아주자.05년생 장벽을 걷어내야 진짜가 보여진다.

58년생 꾸미고 가꿔야 허락을 받아낸다.70년생 슬프지 않은 이별 내일로 다시 하자.78년생 굳이 하는 변명 불이익을 막아내자.94년생 단단한 결심 손가락을 걸어보자.06년생 고생한 대가를 아무지게 받아내자.

47년생 보여지는 목표 앞만 보고 달려가자.59년생 원하던 결과 근심 걱정 사라진다.71년생 까다로운 절차 합격점을 받아낸다.83년생 군기든 신병처럼 바짝 긴장하자.95년생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걸어보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회장실 (내선)210
임원실 (내선)207
총무국 교 2002
광고국 교 2006
<팩 스>(062)528-4566
편집국 교 2001
정경부 교 2003
사회부 교 2004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